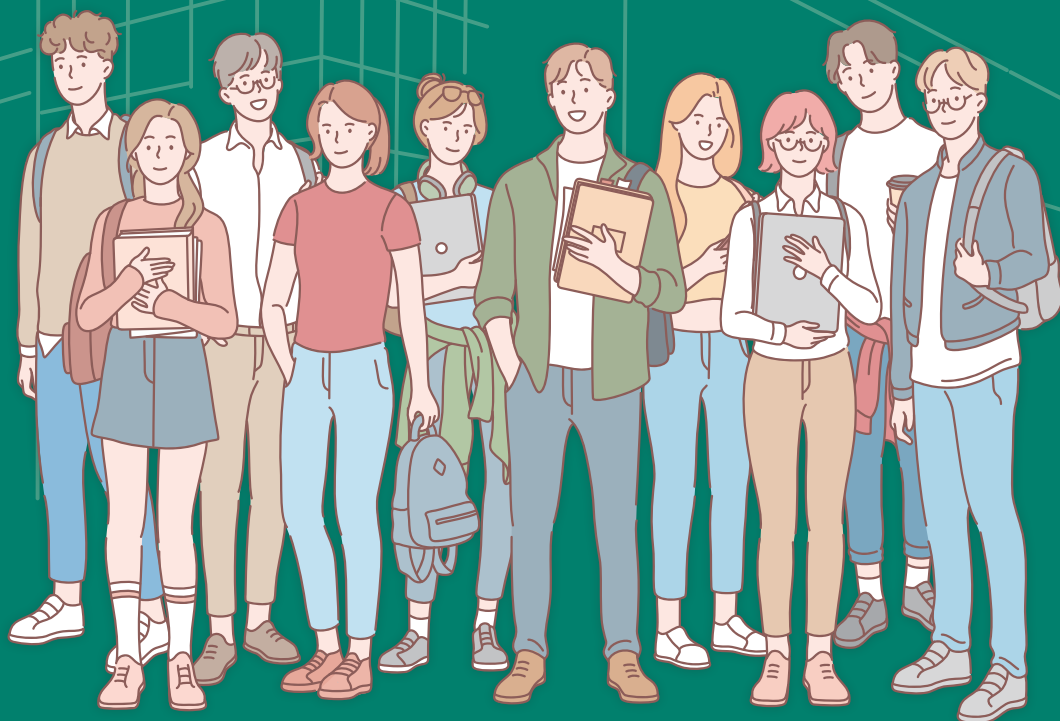




사랑 · 빛 · 자유의 전당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2022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사례집



아카데미코칭센터



C · O · N · T · E · N · T · S

I. 아카데미코칭센터장 인사말_ 04

II.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소개_ 05

III.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수상작_ 07

- 새장 밖으로_ 08
- 담고 싶은 태양이 있다면_ 13
- 새로운 꿈과 기회를 열어준 대구대학교에서의 복수전공_ 17
- 대학의 의미_ 22
- 회전목마_ 26
- 30대 편입생의 제 2의 인생을 위한 도전_ 30
- 휴학: 나를 위한 1년의 투자_ 34
- 하얗게 불태운 나의 대학 4년_ 37
-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 진다: 산업디자인_ 40
-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속도로_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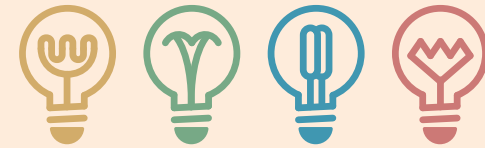
발행처 | 대구대학교 아카데미코칭센터

발행일 | 2022년 10월

주 소 | 38453)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전 화 | 053.850.5050/5854

<http://acc.daegu.ac.kr/academic/main>



I. 아카데미코칭센터장 인사말

II.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소개





아카데미코칭센터장 인사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아카데미코칭센터에 관심을 갖고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의 열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참가하신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공모전 참가 작품들 모두 자신의 미래를 찾고 고민하는 진정한 마음의 소리가 표출된 작품들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의 방향만 보며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양적 상승보다는 질적 상승을, 속도 보다는 바른 방향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도전 정신과 추진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들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지친 자신을 위로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금 잠깐의 멈춤이 실패가 아닌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방향을 재조정하는 시간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Abraham Lincoln)

여러분의 오늘은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방향은 잃지 않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분들께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카데미코칭센터 소장

김보혜



학적변동 성공사례 공모전 소개

가. 공모전 목적

1. 대학 내 학적변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 올바른 학적변동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양질의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
3. 학생들의 사례를 공유하여 공감대 확산 및 정보 공유



나. 공모전 개요

1. 공모명 : 2022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2. 공모 주제 : 학적변동(휴·복학, 부·복수(융·복합)전공, 전과, 편입, 재입학) 성공사례

다.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기준

- 심사위원

소 속	직 위	성명
과학교육학부	주임교수	김보혜
과학생명과학부	주임교수	이성호
유아교육과	주임교수	장혜진

- 심사기준

심사기준					
영역	주제 적합성	전달력	완성도	경험성	활용성
배점	20	20	20	20	20
총 배점 : 100점					



Ⅲ.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수상작



제목 Title	새장 밖으로		수상	최우수상
			학과(부)	영어교육과
	주제	편입학	학년	4학년

새장 밖으로

비행기를 타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항공서비스과에 진학했다. 지금 생각하면 편협한 생각이지만, 아름다움 속에 열심히 발길질을 하는 백조인줄도 모르고 그 직업에 푹 빠져버렸다. 그렇게 원하던 학과에 진학한 나는 내 모습에 만족했다. 깔끔한 쪽머리와 유니폼, 검은 구두는 나를 돋보이게 해주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사회로 나아가는 희망에 부풀 새내기 학생이었다. 그러나 대학교를 마치고 빠른 나이에 승무원이라는 꿈을 이루겠다는 포부는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벽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해외로 통하는 길을 단절시켰고, 당연하게도 그 길의 동행자인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채용은 기대할 수 없었다. 그 당시에 나의 절망감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밤을 새우기도 하였고, 가끔은 남몰래 눈물도 흘리는 날이 있었다. 그만큼 나의 꿈은 승무원이라는 하나의 좁고 작은 목표에 갇혀있었다.

19살의 나는 항공서비스과에 가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였고, 합격했을 때 눈물을 흘릴 만큼 행복했었다. 하지만 나의 행복감은 주변의 평가와 반비례하였다. “○○이는 어느 학교 다닌다고 했지?”라는 물음에 기쁘게 답해주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주눅이 들 때가 많았다. 또한, 항공서비스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나를 점점 괴롭혀 왔다. 나는 내 전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아직도 사회에 나가면 전문대생에 대한 다양한 차별이 존재한다. 동시에 나는 깨달았다. ‘이것만으로는 나는 경쟁력이 없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이 나를 덮쳐왔고, 진부하지만 가장 확실한 명제인 ‘공부만이 살 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무슨 공부를 할 것인지가 문제였던 것이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학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영어라는 과목이 떠올랐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라 하면 가장 좋아하던 과목이었고, 자신 있던 과목이었다. ‘그래, 영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해보자.’ 이렇게 다짐하고 나니 나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다. 그 선택지는 영어 자체의 학문을 배우는 영어영문학과와, 영어를 교육하는 법을 배우는 영어교육과였다.

여기서부터는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나보다 많은 경험과 세월을 보낸 분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내가 자문을 구한 사람은 부모님이다. 부모님께선 두 분 다 교육업에 종사하고 계신다. 당연하게도 부모님께서는 영어교육과를 권하셨고, 그 이유는 영어와 교육학 모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라고 하셨다. 실제로 25년째 교직에 몸담고 계시는 어머니 덕분에 입학하고 나서 교직과목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영어교육과 쪽으로 기우는가 싶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었다. 두 번째로 자문을 구한 전적대학교 교수님께서서는 영어영문학과를 추천해주셨다. 교수님께서서는 항상 내게 아버지처럼 상담을 해주셨다. 영어영문학과는 언어계열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전공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앞날을 위해서는 영어영문학과가 잘 맞을 것이라고 조언해주셨다.

결국 마지막은 나의 선택으로 돌아왔다. 두 학과를 조사해보고, 편입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둘 중 조금 더 마음이 끌리는 곳은 어디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 결과, 영어교육과를 지원해보기로 하였다. 이유는 단순히 교직과목을 듣고 싶어서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지만, 그때의 나는 사범대학을 가는 것이 더 멋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좋았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더 멋있게 살아봐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편입 준비를 시작하였다.

나는 편입을 결코 빨리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졸업반이었던 해의 9월 중순에 결정을 내린 터라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 대학교 홈페이지, 주변의 편입생 언니, 사범대에 다니는 친구, 편입 카페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모두 찾아보았다. 학점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학점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 다만 면접이라는 큰 벽이 나를 가로막았다. 면접 준비는 상당히 막막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단순하기도 하였다. 이 학과를 가고 싶은 열정을 보여주는 일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편입 면접은 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예상 문제 외에 정보가 없으므로 기본적인 자기소개서와 지원동기를 준비했고, 다른 질문은 유연하게 답변하기로 하였다. 걱정했던 것만큼 면접은 어렵지 않았다. 그렇지만 면접 기간 동안 나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대망의 발표날, 대구대학교에서 최초 전형에 합격 통지를 받았다.

뭘 듯이 기뻐서 결과를 받자마자 가족 모두에게 알렸다. 부모님께서도 장하다고 말씀해주시며 며칠간 행복함에 젖어있었다. 심지어 나머지 두 학교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등록 기간이 다가오자, 슬슬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합격한 다른 학교도 좋은 학교들이었기 때문이다. 등록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모두가 하나의 답을 말해주었다. “사범대는 대구대지.” 그 말을 듣고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대구대학교에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나는 입학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 새내기를 맞이하며, 3월 개강을 하였다. 처음 해보는 수강 신청, 처음 걸어보는 교정, 처음 보는 동기들과 교수님. 모든 것이 새로웠다.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학과장님께서 먼저 상담을 하시고 해주셨고, 교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해주셨고, 덕분에 나는 첫 학기 적응을 쉽게 할 수 있었다.

이미 기초가 있는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혼자 뒤쳐진 느낌이 종종 들 때가 있었다. 생소한 과목명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해야 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편입까지 성공했는데 공부를 놓을 순 없었다. 입학 전의 포부를 다잡하고 또 다잡하였다. 누구보다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고 싶었다. 물론 영어교육에 대한 기초지식이 탄탄한 동기들을 모두 이길 순 없었다. 하지만 나는 나만의 기준으로 노력하였고, 3.78이라는 학점을 받았다. 나쁘지 않은 점수였다. 그리고 ‘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첫 학기에 받은 점수는, 다음 학기에 더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의 기폭제가 되었고, 편입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이전까지는 방학을 그저 쉬기만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왔다. 실제로 공부는 고사하고 책 한 권도 안 보던 나였다. 하지만 사범대에 입학하고 나니, 교육봉사라는 것을 해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 문의해 보았고, 그중 고등학교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며 교육봉사를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지원하게 되었다. 사실 멘토링이라는 단어만 보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앞섰다. 하지만 나는 이제 영어에 대한 지식을 쌓는 중이고, 교육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교생실습을 앞둔 사람이다. 그 첫걸음을 멘토링 교육봉사로 내디뎠다.

3주간의 교육봉사는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멘토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공부 의지를 다잡아줄 수 있을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였고, 나름대로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맞이하였

다. 방학 중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나에게도 공부에 대한 자극을 일깨워주었다. 전체적인 나의 멘토링 형식은 고등학교 1학년 4명과 2학년 1명의 영어 과목을 함께 공부하고, 진로에 대한 상담도 같이 해주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며 해결해나갈 수 있었고, 나는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와 단어들을 가르쳐주면서 방학 중 소홀했던 영어 공부를 다시 할 수 있었다. 고맙게도 학생들은 부족한 나를 잘 따라주고 열심히 공부해줬을 뿐만 아니라, 멘토링 마지막 날에는 진심 어린 편지까지 써주었다.

교육봉사 이외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아 계절학기를 수강하였다. 학교 폭력이라는 교직 과목을 들으면서 교사의 업무를 하나 더 배울 수 있었고, 교육봉사를 도와주시던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다. 교사라는 직업에는 뜻이 별로 없었던 나였지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모여 정말 교사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였다. 단순히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서 하게 된 편입이, 나의 앞날까지 바꾸고 있는 것이었다. 방학 때 했던 모든 것이 생전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지만, 이상하게 잘 맞았다. 완강하였던 좁은 나의 세계에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지금까지 나는 너무나도 작은 목표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었다.

누군가가 머리를 때린 것 같이 정신이 들었다. 나는 왜 이렇게 우물 안 개구리로 살아왔던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변수가 있다. 플랜 A만 세워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 직선인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회전, 우회전을 해야 목적지가 나오는 길들이 많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같다. 나는 플랜 A를 포기하고 우회전을 하는 쪽을 택하였다. 플랜 B라는 길로 가다 보니 넓은 들판이 나왔다. 그 들판에서 나는 무엇이든 될 수가 있었다. 승무원도 가능하고, 교사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결정된다. 직선으로 갔었다더라면 불가능했던 것들이 말이다.

사람들은 모두 꿈을 꾸다. 다만 그 꿈의 개수가 다를 뿐이다. 꿈이 하나라고 해서 더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꿈이 여러 개라고 해서 열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는 현재 후자의 경우이다. 나는 꿈이 많다. 그리고 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다. 명확한 목표가 정해진다면, 무엇이든 도전해보는 것을 나의 신조로 삼았기 때문이다. 요즘 나의 포레들은 20대에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작년의 나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1년 동안 변수를 겪으면서 인생에는 굴곡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유연하게 대처해나가며 성공하는 것이 중

요한 것이지,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과거에 기죽어 있던 나는 편입이라는 계기로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나는 내 능력치에 한계를 두지 않게 되었다. 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겁먹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무엇이든 부딪혀보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깨달았다. 값진 선택을 하고 난 후 맛보는 성취감의 달콤한 맛 또한 알게 되었다. 종종 부모님과 ‘편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떠하였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그랬다면 나는 아직 새장 속에 갇힌 새였을 것이다.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미래를 그려나가지 않는 좁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벌레를 잡고, 비를 맞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가 될 수 있다. 나에겐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바다가 날고 싶으면 날 수 있고, 산이 날고 싶다면 날아갈 수 있다. 하고자 하는 것은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20대들에게 소극적인 태도는 독이 될 뿐이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고민만 하고 있던 일이 있다면, 일단 도전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부딪혀본다면 이제까지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당장의 변화가 두려울 수 있다.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때에 불과하다. 두 날개가 있는 새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위기가 있더라도 펼친 날개는 날아가기 마련이다.

제목 Title	담고 싶은 태양이 있다면		수상	우수상
			학과(부)	패션디자인학과
	주제	전과	학년	4학년

담고 싶은 태양이 있다면

손이 태버릴 듯 뜨거울지라도

코로나 시국이 어느덧 3년 차를 지나고 전면대면을 맞이하여 학교에서는 전보다 생기가 피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의 코로나 시국 동안 학우 여러분께서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였습니까? 저에게는 나름대로 의미를 담아 보냈던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의 대학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만족스럽지 못하였던 학업 결과로 인하여 아쉬운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나요? 다들 고등학생 때 마음에 품던 꿈들이 있었을 겁니다. 해당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목표하는 학과나 대학이 있지 않았나요? 저 또한 그러한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게임의 화면을 장식하는 화려한 일러스트를 좋아하였습니다. 막연히 나도 저런 위압감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욕구에서부터 비롯되어 그 꿈은 커져만 갔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지속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디자인 반대로 수시 하나 바라보며 준비한 비실기 생활기록부였지만 부족한 학업성취와 더불어 밀레니엄 베이비의 인구 여파로 인한 경쟁률 수직상승으로 원하던 학과의 지망이 전부 떨어져 나갔습니다. 적잖은 충격과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이 닥쳐왔습니다. 수시 하나 바라보며 학업을 준비하였기에 정시는 더욱 벅차게 다가왔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전공은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담임 선생님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전문대 디자인학과 진학을 결정하였고 편입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렇게 막연히 '4년제는 졸업은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편입을 목표로 대구 소재의 전문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에 정시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학한 패션디자인은 제가 여태껏 공부했던 게임디자인과는 당연하게도 겹치는 부분이 일절 없었습니다. 인체를 그리는 비율부터, 의상제작에 관한 실무까지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막연히 학점을 잘

받아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업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렇게 매 학기 성적관리를 하고 자격증을 한 학기에 1개씩 따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입이라는 목표는 있었지만 어느 학교에 갈지, 즉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연히 마지막 학기를 다니며 다가오는 편입 원서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의 지금 대학 생활을 결정하였다고도 과언이 아닐 우연한 만남이 발생하였습니다. 편입 준비생들을 위하여 대구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님 한 분께서 직접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학교 홍보 차원에서 나오셨나보다 하고 별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커리큘럼에 매도되었습니다. 의상을 3D로 제작하여 의상제작 공정을 줄이고, 편리함을 극대화한 CLO 3D(이하 CLO)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매우 알맞은 프로그램이고 미래전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구, 경산 소재지의 다른 패션학과와 대구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에 원서접수를 하였고 학교를 돌아다니며 시험과 면접을 보았습니다. 망설임 없는 기분으로 결과 발표를 기다리며 어느덧 다가온 결과 발표날, 저는 대구대학교와 네임밸류가 있던 타 대학교에 최초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번째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 대학교는 네임밸류 때문에 합격을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합격이 되었기에 과연 어느 곳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선택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은 타 대학과 차별화된 양질의 수업 및 커리큘럼이었기에 저는 대구 대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이전 대학교에서 수석 졸업을 하며 전문대학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답고 싶은 태양이 있다면

저는 앞서 언급한 CLO를 바라보고 대구대학교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당시 CLO를 배우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합격 발표 이후, 해당 프로그램 담당 교수님, 즉 당시 편입생설명회를 오셨던 교수님께서 당시 CLO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을 찾고 있다, 블라인드 면접이라 확인이 불가하니 따로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에게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 4학년 커리큘럼의 과목을 3학년 때부터 접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배워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툴을 하나하나 배우며 의상을 만드는 과정이 어렵기도 하였지만 신선하게 다가왔었고, 3학년 2학기에 들어서서는 CLO 공모전과 더불어 다양한 공모전에 참가하여 대부분 수상도 하였고, 비교과 자기 주도 활동을 통한 마일리지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이벤트들로 학교생활의 재미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며 자격증을 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친절한 학과 사람들과의 야간작업 및 조별 작업등은 저에게 힘

동심 및 많은 배움을 가져다주었고 빠르게 학교에 적응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수업을 따라가기에 벅차기도 하였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것을 응용하는 능력을 스스로 키우고자 영상 강의를 이해가 될 때까지 보기도 하였고, 따로 의상제작 영상을 보며 연습도 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웃은 정직합니다, 재봉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보이는 재봉의 재미도 편입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컨셉을 잡고 직접 디자인을 하여 스스로 옷을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도 배우고 나만의 브랜드를 제작하는 등 기대 이상의 수업들은 벅차게 다가올 때도 있었지만 후회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며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 학점으로 학기마다 장학금을 받으며 4학년이 되었고, 졸업작품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졸업작품전이 따로 없었기에 걱정도 되며 설레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이전 졸업생들처럼 하나의 작품을 완주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되었고, 학과 수업과 병행하며 작품을 만들어나갔습니다. 6명 내외의 조원들과 하나의 테마에 맞게 1조에 12벌, 즉 1인당 2작장, 옷 벌 수로 따지면 7~8피스를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작하였습니다. 교수님께 여러 번의 피드백을 받았던 의상 디자인, 서울 동대문까지 가서 원단 스와치를 떼와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여 정한 원단, 의상의 실루엣을 정하는 패턴. 이런 세세한 요소들과 더불어 밤을 새우기도 하며 주말을 반납하고 학교에 나와 작업을 하는 일상들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작업이 되지 않고 결과물이 시원찮아 계속 수정하고 때론 자기합리화도 해보며,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의상을 보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제작을 하였습니다. 의상이 전부 완성되고 모델 촬영 날, 저는 제가 만든 의상이 모델이 입고 포즈를 취하며 촬영하는 과정도 너무 새로웠고 가슴 벅찬 일들이었습니다. 이후 완성된 E-book을 보았을 때는 힘들었던 과정이 언제였냐는 듯 행복감에 쌓였고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4학년은 졸업작품전 패션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잘한 사건 사고들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잊지 못할 학교생활이 될 것만 같습니다.

죽어도 놓지 말 것

저의 대구대학교에서의 2년은 후회 없는 선택일 것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이지요. 저는 2년간 교내·외 공모전 수상 7회, 학점 4.2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고, 작년 겨울, 이번 여름 기업실습도 2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인적사항을 줄줄이 읊는 것은 단순 자랑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학업의 재미를 놓지 않게 옆에서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셨던 교수님들, 낮설고 모르는게 많았던 저를 도와주며 이끌어 주셨던 학과 동기 및 선배들, 다양한 학생 지원프로그램

을 개설하여 도움을 주셨던 대구대학교의 임직원분들이 있었기에 저런 결과를 낸 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학과의 프로그램들을 체험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4학년 과대표도 현재 진행 중이며, 교수님의 추천으로 K-MOOC 서포터즈, 과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DU 도전 학기 등 학과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의 저는 과 대표 제안도 거절하였고 소극적인 학과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구대학교에서의 저는 이전보다 자신감이 생기고 좀 더 열정적으로 학과 생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이 재미있고, 수강신청 기간이 되면 강의 계획표를 보며 어떤 강의를 들어볼지 고민하며 내가 듣고 싶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시간표들로 가득 채워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취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학생 시절 꿈꾸었던 게임디자인은 어쩌면 대구대학교를 와서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냥 제가 작업공정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동경하였던 CLO는 이제 3D 게임 아바타 및 애니메이션의 의상도 제작할 수 있고, 메타버스의 시대에서도 다양하게 활약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패션 벤더 업체에 들어가서 CLO를 활용한 R&D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이후 메타버스나 게임 캐릭터 디자인 쪽으로 다양한 진로를 배우면서 하나의 업으로 삼고 싶습니다. 하나의 직업만으로 평생을 먹고 살기엔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은 원동력이 되고,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물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 방면의 시련들을 맞이할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표가 있다면 정석 루트가 아니더라도 목표에 다가갈 방법은 많다는 것을 지난 3년 반의 대학 생활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취업에서도 비슷하게 작용하게 되겠지요. 강가의 다리가 부서졌다면, 주변의 바위를 던져 징검다리를 만들어서라도 건너가면 됩니다. 학우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대학을 위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아쉬운 학우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불만족스럽다면 만족스럽게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젊고 도전할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혹시 제 글의 소재목을 이어서 읽어보셨나요?

“손이 타버릴 듯 뜨거울지라도 담고 싶은 태양이 있다면 죽어도 놓지 말 것”

제가 제일 좋아하고 동기 부여가 되는 출처 미상의 명언입니다. 이렇듯 저는 담고 싶은 태양, 즉 목표가 있다면 죽어도 놓지 않고 노력하여 담아낼 수 있도록 저의 학적변경에서 그 뜻을 조금이나마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꼭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아 상실감에 빠지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하면 원하던 결과에 조금이라도 닿을 수 있다는 사실로 털어내고 긍정적인 힘을 원천 삼아 도전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Title	새로운 꿈과 기회를 열어준, 대구대학교에서의 복수전공		수상	우수상
			학과(부)	유아교육과
	주제	복수전공	학년	2학년

새로운 꿈과 기회를 열어준, 대구대학교에서의 복수전공

새로운 꿈과 기회의 첫 도약인 대구대학교에서의 복수전공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학년 1학기부터 초등특수교육과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21학번 ○○○○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초등특수교육과를 지난 2학년 1학기부터 복수전공하고 있습니다. 학적변동 사례라는 기회를 통해 제가 복수전공을 하게 된 계기, 과정, 전후변화, 느낀점을 솔직하고 진실되게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수전공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큰 이유는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입시기간에 우연한 계기로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저 자신이 그러한 특수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는 강한 결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편견들을 제가 조금이라도 줄여 물질적 복지 뿐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부족한 복지를 강화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적절한 교육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꿨고 그렇게 하기 위해 제가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특수교사가 되자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복수전공을 어떤 절차를 거쳐 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복수전공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특이하게도 대학을 선정할 때부터 특수교육과로의 복수전공을 염두에 둔 케이스입니다. 특수교육을 전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을 먼저 살펴보았고, 대구대학교는 1961년 국내 최초의 특수교육과를 개설하여 초·중등 특수교사를 양성해 오고 있는 학교이기에 특수교육 분야에서 전통이 깊고 전공실습의 기회도 교내에서 가질 수 있으므로 ‘꼭 대구대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여 대구대학교를 최종 지망하였습니다. 입시 원서를 넣기 전 대구대학교 입시요강, 자료실등을 찾아보며 특수교육과로의 복수전공이 가

능한지, 복수전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미리 알아보았으며 학교 측에 문의하여 특수교육쪽 학과를 복수전공 하려면 조건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한 학생이 많을 경우 학점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셔서 저는 1학년 1년동안 학점 관리에 최대한 전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대학에 처음 입학하여 20살이 되어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동안의 힘들었던 입시 공부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 취미활동도 즐기고 싶은 마음, 대학교에서 만난 동기들과의 모임에도 빠짐 없이 참여하면서 어울리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특수교육을 전공하기 위해 대구대학교에 왔기 때문에 무조건 복수전공에 합격해야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마치 고등학생 때의 수험생처럼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듣고, 빠짐없이 내용을 정리하고 그 외에 레포트나 과제 제출, 출결 관리도 최선을 다해 임하였고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은 것인지 1학년 1학기에는 학점 4.32, 1학년 2학기에는 만점 4.5점을 취득하였습니다. 성적이 복수전공의 합격에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확신이 어느정도 든 저는 복수전공 신청기간을 맞아 1학년 2학기 복수전공 신청 기간에 초등특수교육과로의 복수전공을 신청하였습니다. 12월쯤에 합격 결과를 통지받아 2학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복수전공을 시작하였습니다.

복수전공만 합격하면 이후에 큰 걱정이나 난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복수전공을 합격하고 난 뒤에는 학점관리에 힘썼던 지난 1년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복수전공 과정에 있어서 제가 느낀 어려움과 그에 대한 극복경험에 대해서 도 서술하려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난관은, 어느 연령대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할 것인지 정하여 학과를 구체적으로 좁히는 일이었습니다. 대구대학교에는 특수교육관련 학과가 교육대상자에 따라 분류되어 총 3개의 학과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우선이었고, 어떤 연령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하기를 원하는지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여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가장 많은 탐색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학기중에도 틈틈이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등으로 세 개의 학과중 저에게 가장 적합할 것 같은 학과는 무엇일지, 어떤 연령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제가 가장 잘 지도할 수 있을지, 각 학과의 장단점이나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료를 수집하며 저 자신에 대해서 꾸준히 성찰해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초등특수교육'으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현재 초등특수교사이신데 유튜브에 특수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관련 영상이나 조언을 꾸준히 올리시는 유튜버분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썸' 님의 영상에서 마치 저와 같이,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 중 어느 곳으로 학과를 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 본인의 의견과 기준을 알려주신 영상을 시청한 후였습니다. 유아기의 특성과 유아기에 시행되는 교육

의 방식등 유아기 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배운 상태이기에, 유아기 이외의 연령대의 지도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고, 중등특수를 전공한다면 청소년기가 되어 체격이 커진 학생들을 지도해야할 수 있는데, 제가 체격이 큰 학생들을 다루기에는 신체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초등특수교육과로 복수전공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낯선 학우분들과 수업을 같이 들어야해서 외롭고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점입니다. 수업 특성상 팀활동이 많은 수업이 존재하여 지난 1학기에는 처음 보는 분들과 팀활동을 해야하기도 했고 처음 보는 학우분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걱정 또한 존재했습니다. 저는 학우분들에게 제가 왜 해당 수업을 듣게 되었는지와 제가 복수전공하는 학생임을 밝히고 다행히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딪힌 난관은, 많은 수의 수업을 들어야 해서 감당하기 벅찼던 점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복수전공을 하지 않아서 여유롭게 수업 수강신청을 하여 적당한 수의 수업을 수강하는 반면에, 저는 너무 많은 수업을 수강신청하여 들어야 하다 보니 너무 벅찼고,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복수전공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수강해야하는 수업의 수가 많은 것은 앞으로 학점관리를 하는데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남은 3년동안 매 학기 이렇게 많은 수의 수업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특수교육이라는 전공에 대한 부족한 저의 전공기초지식도 하나의 난관이었습니다. 1학년 때에 미리 특수교육과 전공을 들어보지 못하고 2학년이 되어 처음 듣다보니, 전공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도서관에서 특수교육 관련 서적을 대출하여 미리 읽어보고 수업을 듣고, 예습도 철저히 하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번 학기 수강과목에서 보편적 학습설계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해당 용어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다른 특수교육과 학생들과는 달리 배경지식이 거의 없 다시피 하여 도서관에서 보편적 학습설계를 다룬 책을 대출하여 읽어보며 보편적 학습설계가 무엇인지, 생겨난 배경은 무엇인지등의 기초지식을 얻은 후에 수업에 임하였습니다. 복수전공 학과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전공과목을 듣는데에 비해 복수전공을 하게 되면 최소한 2학년에 전공과목을 처음 듣게 되므로 본과 학생들에 비해서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초지식의 격차는 본인이 노력하면 어느정도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저는 제가 1학년 때 쌓지 못한 특수교육에 대한 기본 지식을 관련 도서를 통해 최대한 극복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수전공을 하기 전, 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학년 1학기부터 복수전공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복수전공을 하기 전의 1학년 1년간의 생활을 되돌아 본다면, 확실히 여유롭고 저의 전공에 심도있게 파고들 수 있었고, 집중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많았고 그에 따라 저의 전반적 생활이나 관리에 더욱 신경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복수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매 학기 수업을 여유있게 수강할 수 있으며, 성적 관리에도 용이할 것이고 고학년에는 수업 수강에 급급하기보다는 취업 준비, 공인 영어시험 준비등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전공 후 저에게 일어난 변화는 저의 역량, 예비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반교육대상자 뿐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 또한 제가 지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대상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졌으며, 일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되었다는 것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할 때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아마 제가 복수전공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막연한 두려움이 교사생활 내내 존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부분은 제가 복수전공을 함으로써 자연스레 극복할 수 있었으며 예비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 그리고 통합교육의 시행에도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해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느꼈던 것이, 사범대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특수교육학개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특수교육학개론'을 수강하여도 아직 특수교육대상자들을 다루기에는 저의 전문성, 전공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등특수교육과로의 복수전공을 통해 특수교육에 깊이 파고들 수 있게 되었고, 각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도방법을 배우게 되면서 여러 장애영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수전공을 통해 저는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복지'의 요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상과 대구대학교 교내에서도 장애 학생을 위한 복지나 배려를 발견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내 경사로 설치나 엘리베이터의 닫힘시간이 긴 것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중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로는, 이전보다 제가 더욱 성취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복수전공을 시도하기 전에는 선택도 잘 내리지 못 하였고 항상 우유부단하고 저의 선택에 회의를 느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수전공을 하면서 힘든 동시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존감과 성취감이 많이 향상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복수전공을 통해 느낀점에 대해 서술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하고, 대학을 선정하면서부터 충분히 고민하고 결심하게 된 복수전공

인데도, 가끔은 '내가 너무 선불리 복수전공을 결정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복수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수시로 드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개월간 그러한 회의감에 대해서 생각하고 난 뒤 도출한 것은,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수전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전공을 하면서 얻는 것 또한 많습니다. 정답은 없으며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적합한 쪽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고, 책임을 진다면 어떤 쪽으로 선택하든 그 선택은 옳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제가 회의감을 느낀 이유를 생각해보며 복수전공을 하게 된 것이 앞으로의 저의 삶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떠올려보면 12년 내내 학생 신분이었기에 국가와, 어른들이, 부모님이, 그리고 사회가 옳다고 정해진 방식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칠만한 큰 선택을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학원에 다니고, 숙제를 하고 좋은 시험 성적을 내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지난 12년간 정해진 삶을 살아오면서 일상에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구매할 것인지 등의, 일상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 이외에 제가 저의 뜻에 따라 저의 삶을 결정하는 선택을 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주변의 도움을 받아 큰 결정을 내려본 것이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고, 복수전공을 하게 된 것은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저의 생각에 의하여 내려본 두 번째의 큰 결정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마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한 것인데도 저의 선택에 계속해서 물음을 던졌던 것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2학년 2학기가 된 지금 저의 그런 물음들에 대한 저의 생각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복수전공에 대한 저의 선택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후회도 하고 생각을 했던 경험, 시행착오는 앞으로의 저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복수전공을 하게 된 경험은 저에게 있어 단순히 하나의 전공을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제가 스스로 저의 인생을 설계하고 성찰하며 제가 주체가 되는 삶에 도전하게 해준 시작으로서 저의 인생에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수전공을 하기 전보다, 하고 난 이후의 시간에 저는 저에 대해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지, 최종적으로 원하는 진로는 무엇인지 되돌아보며 저의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비록 앞으로도 복수전공을 하며 감당해야하는 많은 공부량과 선택에 따른 책임 등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전공 이수 후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자립과 역량 강화에 힘쓸 수 있는 특수교사가 되도록 학부시기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의 사례가 대구대학교의 학우분들 뿐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Title	대학의 의미		수상	우수상
			학과(부)	중국어중국어학과
	주제	전과	학년	3학년

대학의 의미

"○○아 난 네가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 1년만 다녀보는게 어때?"

일찍이 고등학교를 자퇴한 우울로 가득했던 열아홉의 나는 아무런 목표도 의지도 의식도 없는 상태였다. 아버지가 낸 대학에 어쩔결에 붙었고, 가족들의 간곡한 바람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그때 나에게 대학이란 1년만 버티면 되는 곳이었다. '1년만 버티자 1년 뒤 나는 이곳을 떠난다' 그렇게 마음에 되내었다. 공부할 의지는 진작에 없었고 우연히도 만난 성격좋은 친구들 덕에 나는 흥청망청 시간과 돈을 쓰며 1학기를 재미있게 보냈다. 하지만 2학기가 되자 친구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나의 상태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 아이들이 앞을 걷는 동안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열아홉의 나처럼 무기력과 우울에 빠졌다. 1학기 때 스무살의 반짝 설렘은 현실적인 고민들로 흩어졌다. 점점 결석을 하고 아예 한번도 나가지 않아 F를 받은 과목도 있었다. 최종적으로 나는 37명 중에 37등, 꼴찌를 하며 1학기를 마쳤다.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내가 간절하다 할만큼 대학 공부에 흥미가 없는지 증명했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믿을 구석 하나는 있어야겠다 싶었는지 부모님께 1년만 휴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1년만 다니라던 부모님도 그때 했던 말과는 다르게 화를 내셨지만 결연한 나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휴학을 했다고 후련하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오히려 아무런 생각 없이 얻은 자유는 내가 다루기 어려운 것이었다. 1년 후 길을 찾을꺼라 생각했던 것은 오산이었다. 휴학은 3년으로 길어졌고 친구들이 졸업할 동안 난 여전히 그대로였다. 휴학을 한 것은 3년이지만 자발적으로 휴학을 한 것은 처음 1년이 마지막이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과 복학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휴학을 했을 때 나는 전과 마찬

가지로 질병으로 인해 입원중이었다. 오랜 병원 생활 중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TV프로그램에 열중했다. 하지만 더이상 국내 드라마는 볼 것이 없었고 우연히 중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난 내 반응이 아주 특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통 드라마를 보면 배우의 얼굴이나 OST등에 집중하기 마련인데 나는 중국어 발음에 집중해 드라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성조로 인해 듣기 힘들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그 소리가 시냇물 흐르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난 그순간 부터 중국 노래와 드라마를 들으며 중국어 소리를 즐겼다. 아무것도 알아 들을 수 없지만 너무 흥미로웠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알지 못해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다. 복학을 하고 '중국 사회와정치'라는 중국어학과 수업을 교양으로 수강했다. 자유 민주주의인 한국과 서구 국가들과는 다른 사회주의 중국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다.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적었다. 시험을 치는 순간에도 재미있었다.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으로 치는 시험은 내가 얼마나 이 수업에 성의를 다했는지 증명하는 것 같았고, 이미 수업 내용은 완전히 익혔기에 못적는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더 적고 싶는데 시간과 종이가 부족했다. 그때 나는 중국어 학과로 전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중국어 학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부모님을 설득해야했고 오랫동안 나의 복학을 기다려준 친구들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고 말해야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물리치료학과는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았다. 취업이 빠르고 그로인해 안정적이며 면허만 취득하면 일정 수준의 소득도 보장된 셈이었다. 게다가 남들 다 오고 싶어 하는 학과에 나는 너무나도 쉽게 진학했으니 거저 얻은것 치고 아주 좋은 결과였기 때문이다. 학과 교수님도 나를 설득하셨다. 현실적으로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지면 언제든지 일할 수 있고 밖은 녹록치 않다고 하셨다. 중국어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유지하며 물리치료학과에 재학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나에게 의미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단호하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전과 원서를 냈고 전과는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복수전공일 때는 부담스러운 수업들이 아니었는데 막상 주전공이 되니 부담스러웠다. 3학년으로 전과를 했지만 나는 중국어라곤 할 수 있는 것이 인삿말 정도였다. 중국학 수업은 열심히만 하면 성적이 나왔지만 언어라는 것은 먼저 배운 사람이 유리하기에 이미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중국어 학원도 다니면서 중국어 공부를 해왔을 학생들을 따라가야한다고 생각하니 눈 앞이 아득해졌다. 처음으로 수강한 과목은 외국인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중급중국어' 수업이었는데 OT 때부터 교수님이 중국어를 수강해본적이 없는 학생은 따라가기 어려울꺼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늦은 전과로 인해 부족한 전공 학점을 반드시 따내야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좋은 성적에도 욕심이 있었기에 불안감을 넘어 첫 수업

을 들을 때까지 두려움에 휩싸였다. 중국학 수업은 따라가기에 무리가 없었다. 아파도 수업을 빠진다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했고 지각을 한적도 없었다. 매 수업마다 진심으로 온 집중을 쏟아 수업을 듣고 복습했다. '중국어 번역'과 '중국 중국어'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 공부했다. 처음에는 너무 미숙했다. 수 많은 한자 속에 아는 단어는 없었고 수업 시간에는 멍뚱뚱뚱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수업을 듣다 보니 반복되는 단어는 익힐 수 있었고 접속사의 쓰임도 외우게 되었다. 중간중간 중국어를 섞어 말하시는 교수님의 말도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모르는 단어는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단어 외우기와 문장 자체를 외우고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아직 많이 부족했다. 내가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모조리 다 외워버리는 것 딱 하나였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기에 효율은 냅다 버리고 무작정 외웠다. 문장 속의 문법 단어들의 쓰임새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교수님이 번역해주신 문장과 중국어 원문을 달달 외웠다. 실기 시험 전날은 12시간 넘게 본문을 암송했고 나중엔 침이 마르고 목이 따가워 이러다 시험을 치겠나 걱정될 정도로 공부했다. 교수님들은 아주 뛰어난 학생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물론 공부에 있어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교수님은 학생이 얼마나 노력하고 성실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신다. 나는 그런 면에서 다른 애들보다 유리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고 나는 그 범위를 다 숙지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중국어과 아무 학생이나 붙잡고 나와 프리토킹 대결을 시킨다면 나는 무조건 졌겠지만 그런 조건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한 학기 동안 성장했으며 결과는 하늘에 달렸다고 생각했다. 이미 공부를 함으로써 성장했기에 별다른 미련도 없었다. 처음이니 성적은 못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계절학기가 끝난뒤 성적을 확인했을 때 내 성적 표엔 학년 전체 1등이라는 성적이 적혀져 있었다. 대학을 와서 처음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온 몸에 소름이 돋았고 감격스러웠다. 나는 1차적으로 공부를 하며 스스로 성장과정을 지켜본데 대한 대견함과 2차적으로 높은 성적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성취감으로 앞으로 학업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사실 학기 말에 위와 심장에 문제가 생겨 시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남들이 종강날을 기다리는 동안 내 휴대폰엔 수술날짜를 세는 디테이가 적혀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노력하고 싶었다. 더이상 학교를 휴학하고 싶지 않았고 이십대 들어 처음으로 온전히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었다. 사실 나는 중국어 학과를 나와 학과에서 배운 지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리라고 생각치 못했다. 그럼에도 나는 오로지 배우는 그 시간이 즐거웠다. 내 인생을 긍정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공강 시간에 도서관에 앉아 4층 도서실 끝에서 문열린 틈의 바람을 맞으며 공부하는

순간도 좋았고 언제든지 공부할 공간이 있는 곳도 좋았다.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는 교수님들한테 감사했다. 처음 학교에 아무 목적없이 끌려왔던 나와는 다르게 나는 행복감을 느끼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대학이 더이상 학업의 전당이 아닌 어느 누가 취업을 많이 하나 경쟁하는 기업으로 변질되었다고들 한다. 나도 그런 비판에 일정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적어도 나에겐 이곳이 학문의 전당이며 세상을 보는 시각이었고 가방끈이 아닌 사고의 힘을 길러주는 곳이다. 나에게 대학의 의미는 그렇게 변화하였다.

제목 Title	회전목마		수상	우수상
			학과(부)	재활건강증진학과
	주제	복수전공	학년	3학년

회전목마

회전목마

19살의 나는 글을 쓰고 싶은 작가 지망생이었다. 흰 공백 위에 커서를 올려두고 글을 채웠다. 그때만큼은 난 글을 그리는 화백이 되었다. 글씨를 새기며 나를 채워갔다. 온전한 나만의 세계였다. 어느 날 흰 도화지 속을 배회하다가 반짝이는 ‘회전목마’를 보았다. 찬란히 반짝이는 말들이 빙글빙글 돌았다. 이끌리듯 다가가 손을 뻗다가 재빨리 물렸다. 덜컥 겁이 났다. 그것은 남몰래 품은 작은 씨앗을 흙치는 일과도 같았다. 용기가 필요했다. 그 앞을 한참이나 서성이다 마침내 계속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나는 반짝이는 말을 잡아채 올라탔다.

본격적인 입시가 다가왔다. 와인을 음미하듯 글을 맛볼 틈이 없었다. 나는 글을 기계적으로 찍어 내야 했다. 핏덩이를 쏟아내며 태어난 글들은 죽어있었다. 무정란 같은 글들이 깨지고 버려졌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나는 겨우 토해낸 글을 대학 원서와 함께 넣었다. 그 후론 글을 쓸 수 없었다. 돌아가던 회전목마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멈췄다. 불빛이 꺼지자 새까만 암흑이 사위를 삼켰다. 나는 손으로 주변을 더듬거리며 말에서 내렸다. 천천히 어둠 사이를 정처 없이 걸었다. 어딘지 모르는 채로 무작정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지쳐있던 와중 전화가 걸려왔다. 대학 설명회에서 알게 된 언어치료학과로부터 온 합격 소식이었다. 직업적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지원한 학과였다. 그렇게 나는 ‘코로나 학번’이라 불리는 비운의 20학번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코로나는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전염시키고야 말겠다는 투지를 내보이며 보란 듯이, 빠르게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서로 거리를 두어야 했다. 멍치면 죽고 흠어지면 사는 세상이 되었다. 마스크를 쓰게 된 이후부터는 사람들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다.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가늠하지 못했다. 당연히 누려왔던 일상조차 사치였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순 없었다. 그런 배경에서 탄생한 방법이 비대면 시스템이었다. 내가 듣게 되는 수업 모두 온라인 강의, 혹은 비대면 화상 수업으로 대체됐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몇 주간 이어졌다. 갑작스레 터진 재난 상황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수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나는 입학한 이래 일 년간 학교에 가지 못했다. 동기들은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몰랐다. 첫 대학 새내기 시절 경험을 떠올려보라고 하면 화면 속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은 기억이 다였다.

대한민국 입시를 거치며 몸이 안 좋아질 정도로 살이 췌다. 건강을 지키고자 시작한 운동에 완전히 빠졌다. 근육이 붙을 때마다 희열을 느꼈고 하다 보니 살은 자연스레 빠졌다. 운동은 나의 일부가 되었다. 운동을 건너뛰는 날에는 불안해졌다. 이런 몰입감은 글을 쓰지 않게 된 이후로 느낀 강렬한 이끌림이었다. 어디선가 삐걱거리며 놀이기구 작동하는 소리가 들린 것도 같았다. 나는 점차 운동에 욕심이 생겼다. 자격증을 알아본 후 본격적인 공부를 했다. 틈나는 대로 운동 방법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며 관찰하고 적용했다. 처음에는 나에게 맞는 운동 루틴을 세웠다. 이를 토대로 점차 지인에게로 운동을 가르쳐보았다. 이러한 과정들이 나를 도전하게 했다.

나는 자퇴를 결심했다. 이때야말로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리라 확신했다.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셨다. 진로 방향성에 대해 같이 얘기를 나누며 조율했다. 그 과정에서 언어치료학과가 아닌 운동과 관련한 학과로의 편입을 결정했다. 모든 것은 맞물려 일어났다. 나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다. 실패라는 옵션은 없었다. 나 자신을 향한 믿음과 자신감이 있었다. 짚고 넘어가면 나는 언어치료학과에 관심이 없던 것도, 적성에 안 맞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갈망의 크기가 달랐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순 없었다.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는 모른다. 다만 예전에 내가 보았던 반짝이는 회전목마를 떠올리니 모든 것이 다 괜찮아졌다.

여담이지만 내가 학교를 그만둘까 고민하던 때에 학교가 폐교 위기에 휩싸였다. 코로나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았으리라. 학교는 쥘 죽은 듯이 고요했다. 건너 건너 듣자 하니 이미 몇 해 전부터 앞서왔던 선배들이 많이 떠나는 상황이었다. 전국적으로 대학이 정리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 영향이 나에게도 미친다는 사실이 새삼 생경하게 느껴졌다. 그뿐만 아니라 역삼각형에 가까워지는 인구 그 래프를 보며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선지든 간에 미래의 청년들에게 생존과 부담의 문제가 크게 다가오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적을 알아야 대비를 하듯이, 편입에 성공하려면 편입제도를 알아야만 했다. 편입에는 두 유형이 있

었는데 일반편입과 학사편입이 있었다. 나는 전적 대학에서 2학년까지 마친 터라 일반편입만 가능했다. 알아보니 학교마다 편입조건들은 달랐다. 편입제도를 공부하다 알게 된 사실은, 내가 총 이수학점이 약간 모자라 어디에도 지원하기 애매했다는 것이다. 2점 차이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제한되었다. 절망스러운 기분이었다. 오랜만에 맞본 쓴맛이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이젠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지원할 수 있길 바라며, 찾고 또 찾았다.

하얗게 새운 밤들이 지나갔다. 나는 다양한 이유로 생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다. 고투 끝에 나는 운동처방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학과를 찾았다. 운명 같은 만남이었다. 단순히 운동하는 것을 넘어 운동을 처방하고 관리, 감독, 교육하는 법을 배우는 학과라니. 심장이 뛰었다. 결정은 내렸다. 되든 안 되든 시작한 모험의 끝을 보고 싶었다. 최선을 다했고 후회는 없었다. 기다리던 합격자 발표가 나왔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나의 수험번호를 기재해 조회를 클릭했다. 화면에 내 이름이 있었다. 나의 선택과 노력으로 무사히 편입할 수 있었다. 나는 편입 우수 학생으로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돌아보면 전적 대학에서 보낸 2년이란 시간이 실감이 안 났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20학번들이 다 그랬으리라. 도전한 것, 목표를 이룬 것도 많은 시간이었지만 배움에 대한 결핍은 컸다. 자퇴를 결심할 당시 좌절감보다 의지와 오기, 활력이 나를 지배하던 감정이었던 것을 보면 이 결핍은 나의 원동력이 되어 편입 성공으로 이어졌음이 틀림없다.

코로나가 주춤하고 대학가는 다시 활기를 띠었다. 비대면 수업이 풀리면서 학교에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생기를 되찾은 느낌이라 나까지 파릇파릇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전 그렇고 강의실은 어디지.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려면 우선 건물 위치와 길을 알아야 했다. 학교가 꽤 넓은 탓에 길을 익히느라 애를 먹었다. 그렇게 강의실을 헤매다가 우연히 신입생을 위한 학과 오리엔테이션을 발견했다. 앞으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 서 있던 학생회 한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참석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학생회와 교수님의 소개를 들을 수 있었고 학교 건물들을 둘러보며 편의 시설의 위치 또한 간략하게 알 수 있었다.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고 표현한 이유는 편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과장님의 임시 소집은 있었지만 다른 별도의 오리엔테이션은 없었다. 편입생들의 적응에 관한 콘텐츠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다.

나는 학교 SNS며 카톡 친구를 대거 팔로우했다. 정보는 생명이었다. 학교에 관해서라면 최대한 많

은 소식과 정보를 받으려고 노력했다. 모르면 동기나 선배들에게 물어봤다. 덕분에 전체적인 학교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나비효과라고 했던가. 학교에서 주최하는 크고 작은 행사를 제때 알게 되었고 참여 조건이 되는 행사라면 기꺼이 참가해 즐겼다. 가장 인상 깊었던 행사를 말하자면, <저주토키>의 저자인 정보라 작가님을 초청한 강연이 정말 좋았다. SF 소설의 역사부터 SF의 첫 단추를 꿰맨 작가들을 알 수 있게 된 자리였다. 강연의 막바지에는 작가님이 쓰신 <저주토키>에 대한 간소한 큐엔에이가 이어졌다. 정보라 작가님은 재치 있으시면서 용기 있는 분이셨다. 정보라 작가님의 사인을 받고 돌아가는 길이 평소보다 짧게 느껴졌다.

한 학기 동안 학과 공부를 하며 많이 성장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책과 정보의 호수를 뒤져서라도 알아냈다. 공부하는 공간이 잘 마련되어있었던 것도 도움이 되었다. 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하던 시간 모두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었다.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의욕적으로 헤쳐나간 경험이었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 그 시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뒤처지지 않으려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나를 이끄는 어떠한 힘이 있었다. 나를 인도한 그것은 아마 입시라는 벽에 가로막혀 작동하지 못하게 된 회전문마의 불빛이었다고 믿는다. 그때는 벽이 그렇게 크고 단단해 보였는데 다시 돌아보니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밝은 빛이 벽 너머로 흘러나오는 모습을 본다. 벽은 부수면 그만이다. 나는 머리가 두툼한 망치를 들고 벽을 내리쳤다. 낡은 벽에 미세한 균열이 가면서 틈새로 회전문마가 희미하게 보였다.

누구든 저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인생의 회전문마가
고장 나지 않고 잘 돌아가기를 빈다.

제목 Title	30대 편입생의 제2의 인생을 위한 도전		수상	장려상
			학과(부)	사회복지학과
	주제	편입학	학년	4학년

30대 편입생의 제2의 인생을 위한 도전

저는 올해로 31살이 된 사회복지학과 4학년 000입니다.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늦은 나이에 학교에 온 저의 스토리를 편입 전의 배경부터 현재 상황까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편입 전의 배경]

저는 2010년에 대구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17년도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경영학과에 입학했을 당시에 딱히 어떤 과를 가야겠다고 명확한 목표 없이 성적에 맞추어 본과에 들어왔었고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중간 이상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학점도 평범하게 받고 대외활동 1회와 800점대의 토익점수를 만들고 졸업하여 2018년 경기도 화성 소재의 자동차 부품 업체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스펙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던 저에게 대학입시 때 학교를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저를 뽑아준 회사 중 급여를 포함 여건들이 가장 나은 회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회사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의 성격은 외향적이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중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맡은 업무는 하루 종일 설비와 로봇을 관리하며 0.001의 오차를 측정하는 품질관리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내 성격과 업무가 맞지 않더라도 하다 보면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악으로 강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가 지났고 어느 정도 업무에 적응이 될 시점에 회사에서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과 재활의 기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최소 한 달 이상 입원을 해야 했

었고 이제 막 적응을 마쳐가던 저에겐 복귀까지 걸리는 수술보다 관리를 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먹고 6개월 이상 무릎 보호대를 하면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연봉은 어느 정도 맞지만 이렇게 아픈 다리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이 직업을 정년 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과 친척 그리고 지인들과의 상담을 하였고 그 결과 더 늦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2년이 넘게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자진해서 그만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는 자신에게 맞는 일 그리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현직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지인들이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저의 모습과 성당이나 회사에서 레크리에이션 MC를 본 기억이 있는 저에게 딱 맞는 직업이라고 하였고 30대가 지난 나이에 사회복지사로 재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고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사회경험이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 끌리게 되었고 2020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편입에 도전하다.]

사회복지학과로 진로를 결정한 후에 가장 먼저 학점은행제, 사이버 대학, 전문대, 4년제 사회복지학과 중 어떤 곳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지인들과의 면담을 하였고 그분들께선 사회복지현장을 목표로 한다면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로 편입을 하는 것이 취업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추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경북지역의 어느 사회복지 현장을 가더라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출신의 사회복지사가 팀장 및 관장의 주요 요직에 있는 경우가 많고 아직까지 사회복지 현장은 블라인드로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학교 간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구대 사회복지학과는 다른 편입생들도 많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고도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장 좋다는 본교 사회복지사 편입을 위해 학교 입학처와 사회복지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편입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면접을 위해 본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면접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에게 제가 준비한 것들을 진실되고 또렷하게 어필하였고 합격이 되어 본격적인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것을 얻은 학교생활]

편입에 성공한 후 첫 학기 수강신청부터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방학기간 중에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조교님께 도움을 받아 수강신청을 하였습니다. 학사 편입을 하였기 때문에 교양은 들을 수 없고 4학기 동안 전공학점으로 66학점을 채워야 했기에 앞으로의 나날들이 걱정되었지만 막상 학기가 시작되고 수업 시간에 부족한 부분들은 즉각 교수님들에게 물어보고 본교 도서관을 이용하여 자료를 찾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편입 후 첫 학기 3.7 정도의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평범한 성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20대 학생들과 비교하여 많이 뒤처지지 않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얻은 성적이라 뿌듯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다음 학기에는 더 높은 성적을 기록하겠다는 목표도 생겼습니다.

또한 학기를 진행하며 학교에서 진행하는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도우미 활동을 하며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이론으로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대상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얻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중 한 학생과는 형 동생으로 잘 지내고 마지막 학기인 올해도 같은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1학기를 마치고 2학기에는 코로나19가 완화되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학기 때 거의 없던 조별 과제들도 많이 생기고 과목들도 점점 어려워졌지만 사회복지에서 협업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였기 때문에 조별 과제도 열심히 참여하고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원들이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당황하고 잘 다가오지 않았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친

해지려고 노력을 하니 학우들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학기는 4.2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였고 1학기 보다 더 보람차게 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편입을 하고 1년의 시간을 무사히 보낸 후 2022년에는 코로나19가 완화되어 모든 수업이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왕복 2시간 이상의 통학이 힘들었지만 제 목표인 사회복지사의 꿈을 위하여 전력으로 학교를 다니고 작년에 수업을 들었던 학우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새로운 학우들과 친하게 지내며 과제 수행도 하며 4점대의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계절학과와 사회복지학과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인 현장실습을 다녀오며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이번 마지막 학기에는 9학점을 들으며 학교 수업은 적어졌지만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졸업시험 준비와 내년에 있을 1급 시험을 미리 준비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편입 스토리를 적으면서 2년 전에 큰 결심을 해야 했던 저의 상황과 준비를 했던 시기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과 지인들이 30대의 나이에 너무 무모한 도전이 아니냐고 한 사람도 있고 저도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과 좌절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덕에 제 앞길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사회복지 현장에 취업 준비를 하며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겠지만 편입을 결심하고 행동했었던 그 기억과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데 많이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학우들과 대학입시 및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제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Title	휴학: 나를 위한 1년의 투자		수상	장려상
			학과(부)	기계공학부(기계설계공학전공)
	주제	휴학	학년	4학년

휴학: 나를 위한 1년의 투자

계기

휴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내가 취업하기에 과연 충분한 준비가 되었을까? 자격증은? 나를 뽑아주는 회사가 있을까? 취업할 시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자 여러 가지 의문에 휩싸였다. 전공과 관련된 기업은 어디가 있는지, 어떤 직무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지, 다른 친구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무지한 상태였다. 정말 나는 취업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공과대의 등록금을 감당하기에 벅찬 것도 있었다. 휴학을 하여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면서 등록금 마련과 취업준비를 함께할 생각이었다. 이것이 내가 4학년 마지막 학기에 과감하게 휴학을 결정한 이유이다.

그렇다고 대학교를 다닐 때 전공공부에 소홀했던 것은 아니었다. 1학년 때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이력서컨설팅캠프, 길드주제연구최종발표회 참여,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티, 토의수업, 6시그마GB과정, 일 본해외전시회참관을 하였다.

또한 스무살이 되어서 처음 배우는 역학이라 어려움이 많았던 나는 동기들과 러닝시그를 통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정역학 공부를 하였다. 관성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지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이에 따른 변형을 연구했다. 스터디를 통하여 동기들과의 지식을 공유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되어 A플러스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라는 협업을 통하여 배려심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학년에 올라와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며 후배들이 힘들어하는 과목을 가르치며 문제해결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래로서 할 수 있는 진로, 학업, 대인관계의 고민이나 혼자 짚어지기에는 무거운 주제를 상담하고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성숙하게 거듭났다.

또한 교수님의 원활한 수업진행을 돕고 동기들의 단합을 도모하는 과대표를 1년 동안 하였다. 당시 중요한 전달사항과 과제들을 취합하여 동기들에게 전달하고 휴강 및 보강 일정을 즉시 동기

들에게 알려 통학하는 동기들도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동기들 사이에 의견이 갈릴 때는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동기들의 의견을 대표자로서 전달하여 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힘썼다. 이런 경험으로 팀워크와 리더십을 키울 수 있었다.

이외에도 겨울방학 때 학교에서 시행하는 캐드수업을 들었고, 교외활동으로는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봉사활동도 하였다. 2학년 때 수강했던 캐드수업을 바탕으로 3학년 때는 ATC자격시험CAD 취득하였고,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산업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하였다.

4학년 1학기에는 공부가 부족했던 카티아 과목을 재수강하면서 설계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재수강과목의 A를 제외한 나머지과목은 학교성적을 전부 A플러스를 받았고 4.4학점으로 휴학 전을 마무리하였다. 1,2학년 때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교내활동을 주로 하였고 3,4학년 때는 조금 더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준비하는 등 자기개발에 집중하였다.

다른 동기들 보다 치열하게 전공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대학생활을 온전히 즐기지 못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은 조금 남지만 2학년 때부터는 매년 성적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는 등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과정

휴학 후에는 꾸준히 다니고 있던 스터디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스터디 카페에서 다양한 공부를 하는 취준생, 공시생, 수험생을 보면서 꿈을 이루려는 그들의 노력을 보았다. 오직 자신의 목표만을 위해 책상에 앉아 사회적 경력, 인맥, 건강, 애인, 사람 포기하며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준비생들의 열정을 생생하게 느꼈고 배운 바가 많았다.

먼저 기사를 준비하였다. 휴학 전 교수님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몇 가지 소개해주셨는데 그중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가 있었다. 안전관리 및 설비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자격증을 목표로 두게 되었다. 3학년 때 이미 취득한 산업안전산업기사와 함께 있으면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시험공부에 있어 생소했던 소방관련 법규와 시설구조 및 원리 외우는데 힘이들어 있었다. 하지만 전공으로 배우면서 흥미가 있었던 유체역학도 상당히 출제가 되었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상반기 안에 취득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한 결과 한 번의 시험으로 취득 할 수 있었다.

그 후 하반기에는 기업에 입사지원을 하기 위해서 영어는 필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며 오픽을 준비하였다. 영어를 직접 말하고 영작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무작정 앉아서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서 LC와 RC를 풀어야하는 토익을 푸는 것 보다는 훨씬 재미가 있었다. 현재 학원을 다니면서 오픽 성적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대구지역 공공기관 면접전형 운영요원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면접현장을 경험하였다. 지원자들이 준비한 자기소개 피피티를 보고 들으며 실질적으로 지원자들이 취업을 위해 준비한 스펙은 무엇이 있는지, 면접관들이 어떤 유형의 지원자를 선호하는지, 지원자가 탈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면접에서 자세와 목소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인상을 가져다주는지 등의 많은 걸을 배우고 깨달았다. 운영요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면접의 현장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전후변화

휴학 전과 휴학 후를 비교하자면 휴학 전에는 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취업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이 상당했지만 휴학을 한 후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알아보고 나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과 가짐으로써 취업목표를 설정하였고 목표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무별로 필요한 역량을 탐구하였다. 이로 인해 가고 싶은 기업과 하고 싶은 직무가 확고해졌다.

복학 후엔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도 취득하여 쌓기사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취업에 있어 유리하게 할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탐구한 것을 바탕으로 DU커리어설계를 수강하여 실제 취업사례와 연계한 취업역량 개발 활동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이력서를 쓰고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취업컨설팅에도 참여해보고 싶다.

느낀점

휴학 한 1년의 시간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막상 휴학을 결정했을 때는 마지막학기에 휴학하는 게 맞을까? 괜히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1년 동안 실제 면접현장을 체험하였고 기사공부 등을 하면서 조금 더 안정감을 얻고 하나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남은 시간동안 내가 정한 기업의 인재상에 도달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메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후 취업에 성공한 후에도 기계설계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한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닌 더 성장하는 것이 나의 최종목표이다.

제목 Title	하얏게 불태운 나의 대학 4년		수상	장려상
			학과(부)	재활심리학과
	주제	복수전공	학년	4학년

하얏게 불태운 나의 대학 4년

고등학생부터 재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는 특수, 재활, 복지 계열에서 탐인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에 입학했다. 사실 나는 치료사보다는 특수 교사가 되고 싶다는 갈망이 컸고 그렇게 입학과 동시에, 전과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면서 내 진로에 대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1학년을 마칠 때까지 학과 수업에 매진하면서 재수와 편입, 그리고 복수전공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재활심리학과에 대한 학부 과정을 거치면서 내 꿈은 특수 교사에서 치료사로 확실한 자리를 잡았다. 그때부터였을까? 나는 다른 학우들과 동등하게 가고 싶지 않았다. 힘들게 대학와서 같은 등록금을 내더라도 내가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공부는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복수전공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복수전공학과를 정하는 순간에도 나는 고민했었다. 단순히 메리트 하나만을 보고 해야 할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할까? 와 같이 나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다. 한 학기 동안, 고민하면서 적성과 페이를 고민하면서 관심있었던 학과에 대해 공부를 하고 계획서 등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창의융복합 전공인 미술치료전공에 대해 눈이 들어왔다. 재활심리학과에서 치료사로 일을 하게 되면 크게 인지치료, 놀이치료, 심리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치료방법을 동원해 치료사로 일을 하게 되는데 특히, 창의융복합 전공인 미술치료 전공은 내가 재학 중인 학과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고, 나 역시 학교 적응과 관련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던 상황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혼자 그림을 종종 그리고는 했었다. 이런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술치료 전공에 대해 빠지게 되었고 나는 2학년 2학기 기준으로 창의융복합 전공인 미술치료 전공으로 복수전공을 시작했다.

2학기가 되고, 주전공과 복수전공을 병행하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학기가 시작되었다. 주전공은 아

무래도 이론 수업 위주라 비대면으로 진행되어도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지만, 미술치료는 매체의 사용 방법부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알고 할 줄 알아야 하다 보니 실기 수업 위주로 진행되었다. 창의융복합 전공이 여러 학과의 수업을 들으며 하나의 전공을 취득하는 것이라 실기 수업을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주로 시각디자인학과와 아트앤디자인학과 학생들과 함께 하는 수업은 내 자신이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자존감도 많이 하락되었다. 나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도 되었던 게 당연히 그 학과 학생들은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늘 그림만 그렸던 학생들이기에 나보다 뛰어나고 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였기에 위축되거나 할 이유는 없었지만, 학점에 대한 욕심도 그림에 대한 욕심도 스스로가 너무 컸던 이유였는지 수업 따라가기는 버겁고 그만큼의 실력은 향상되지 않자 너무 포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초심을 되찾고자 하였다.

그렇게 한 학기가 마무리되고, 방학 동안 부족한 공부를 하면서 더 배우고 싶은 공부와 내가 과연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술치료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면서 직접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진행도 하면서 미술치료에 대한 고민은 확신으로 변하면서 치료센터를 다니며 많은 아동을 보면서 수 많은 대상자들 중에서 유아동에 대해 더 깊게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3학년 1학기부터 아동가정복지학과를 부전공하게 되었다. 남들은 옆에서 복수전공 하나만 해도 괜찮는데 왜 굳이 부전공까지 하려고 하는가? 부전공은 학위도 나오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와 같이 많은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는 했다. 학위를 목적으로 했다면 나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같은 등록금을 내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은 이때가 아니라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4년 동안 내 학업에 모든 걸 태우고 싶었다. 단순히 더 알고 싶다면 타과 전공 이수만 해도 되겠지만, 왜 부전공으로 힘들게 하는 것인가? 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의 전공 과목만을 듣고 그 분야를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유아동에 관한 과목을 최대한 많이 듣고 재할 분야에서 벗어나 가족이라는 개체부터 부모, 유아동에 관한 모든 분야를 알고 싶다.”라고 늘 대답했다.

현재 나는 재활심리학과라는 주전공에 창의융복합전공인 미술치료를 복수전공하며 아동가정복지학과를 부전공하고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피곤하게 살고 의미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졸업을 앞둔 이 시점에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더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 많이 배우고 발전했다고 느꼈다. 또한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하면서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확신으로 변하게 되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분야에 대해 더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주전공 하나만 하고 있을 때보다 나의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나는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학업에 몰두하고 더 많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나의 시간을 포기하면서 공부했던 것들이 모두 나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특히 실기 과목에서는 타과 학생들과 성적을 겨루어야 하기에 많이 불리하기도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성적이 끝이 아님을 느끼게 되었다.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추후에 클라이언트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어떤 목표를 세울 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 또한 많은 성장을 했다.

후배들이 “선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꼭 해야 할까요? 진로에 대한 고민은 있는데 확신은 없어요. 그럼에도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나는 후배들의 질문에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나는 현재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다. 오히려 내 진로에 대한 확신으로 변화되었다. 물론, 나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너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전혀 알 방법이 없어 한 번 정도 궁금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나는 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면 우리 학교의 좋은 장점 중 하나인 학적변동이 자유로운 것이니 그때 취소해도 괜찮다.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만 하기에는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다. 나도 4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지냈기에 후회가 없는 대학 생활을 보냈다고 자신할 수 있다. 너희들도 많은 경험을 하면서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보내면 좋겠다.”고 늘 말했다.

뻔하면 뻔한 내용일지라도 나에게 한 번이라도 학적변동과 관련된 고민 상담을 했던 후배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고 있으며 선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결정하기도 쉬웠고 학업에도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으며 고맙다는 이야기를 늘 들었다. 만약 내가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 오히려 뻔한 말 한마디 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내 진로에 대한 고민이 확신으로 변하게 되었고 나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후배들에게 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도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나의 개인적인 여유와 시간은 부족했는지 몰라도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다. 오히려 그 선택을 한 자신이 자랑스럽다. 다시 한번 대학에 입학한다면 다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할 것인가? 에 대한 질문에 나는 고민도 하지 않고 할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만큼 나의 대학 생활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준 선택이다. 많은 학우분들이 나의 이야기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제목 Title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 진다 : 산업디자인		수상	장려상
			학과(부)	산업디자인학과
	주제	전과	학년	2학년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 진다 : 산업디자인

편리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모험적이지만 어떤 것보다 아늑함을 주는 가구를 좋아한다. 여느 디자인과는 다른, 독특한 가구에서 난 매력을 느꼈다. 직사각형의 딱딱한 침대 프레임, 흔하디 흔한 네 다리의 자, 그런 평범하고 정형화된 틀에 갇힌 디자인이 아닌, 나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하고 싶었다. 따라서 나만의 가구와 제품을 디자인하고 싶어 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산업 디자인학과를 희망했다.

수시 원서 모두 산업디자인학과를 희망했고, 짧았던 입시기간 탓에 눈물의 불합격 후 정시 준비를 했다. 정시 가, 나군 모두 타 대학 산업디자인학과를 지원했지만, 다군 지망이었던 대구대학교에는 희망 과인 산업디자인학과가 나군에 있었기에 다군으로 쓸 수 있었던 생활조형디자인학과를 지원했다. 아무래도 과 이름상, '생활 조형'이다보니 내가 하고 싶은 가구, 제품 디자인 등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 보였다. 정시 결과가 나올 때 즈음, 나는 모든 학교에서 예비 번호를 받았다. 합격 가능성이 낮은 번호였고, 이렇게 재수 준비를 하는건가 했는데 다군의 생활조형디자인학과 예비 번호가 당겨져 다행히도 추가 합격했다. 그렇게 난 대구대학교에 입학하였다.

입학 당시, 난 내가 정말로 바라던 학과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학교 생활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었다. 그러나, 입학 전 내 걱정과는 달리 생활조형디자인학과에는 내가 보지 못한 장점이 정말 많았다. 생활조형디자인학과는 조형예술대학 중 유일하게 한 건물 전체를 그 과만 사용하였기에 과 생활이 자유로웠고, 실기에 집중 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타 과 학생들과의 실기실 관련 문제도 없을 수 있어 방해 받지 않고 실기할 수 있었고, 전문적인 실기 장비들과 3, 4학년이 함께 전공 수업을 들으며 선후배 간의 교류도 잦아 전공을 깊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었다. 또한, 한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의 제자였을 만큼 이 분야에서 명성있는 분이셨고, 과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님과 학생간의 교류가 원활하며 학생 상담과 학과

생활의 불편한 부분을 피드백 하는 등 빠른 피드백을 요할 수 있어 좋았다.

나쁘지 않은 과의 첫인상이었지만, 생활해보니 내가 꿈꾸던 시스템과는 달랐다. 환상이 깨지는 첫 학기였다. 나와 같이 과 이름만 보고 생활 제품을 디자인 하는 줄 알아 이 과에 지원한 동기들이 꽤 있었는데, 생활조형디자인과는 금속 주얼리&조형을 하는 과였다. 오로지 금속과 석고만 다루었고, 주얼리, 금속 동상과 같은 것들에 집중된 과였기에 내가 바라고 왔던 가구나, 제품 디자인과는 전혀 연관되지 않는 곳이었다. 과 이름만 보고 실제로 무엇을 배우는 과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나의 잘못이었다.

생활조형디자인학과에서는 1학년 전공 수업에서 주요 실기와 관련된 전공(금속, 석고)을 배우는 것이 아닌, 조형의 기초에 관한 드로잉 수업을 진행했다. 전통 문양 디자인, 오브제 디자인 등을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과 주요 전공이 될 기초적인 부분의 이해를 위해 수업한 것이었지만,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온 내게는 고등학교 미술 시간의 심화 버전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고 그다지 흥미롭지도, 유익하지도 않았다.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다. 한 전공 수업의 교수님께서, 타 대학 산업디자인학과 3학년 학생들의 수업에도 출강하셨다는데, 우리를 그 학교의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말씀하셨고, 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고 늦게 오시는 등의 행동을 일삼으셨다. 내가 원치 않는 과에서, 원치 않는 수업을 듣고 원치 않는 비교마저 당하니 학교 생활에 많은 회의감이 들었다.

정시 입시 기간 중, 대구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그 때 입학 홍보 자료들에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입학 후 전과를 할 수 있다는 홍보문을 본 적이 있다. 학교생활에 대한 여러가지 회의감으로 힘들어하던 중, 문득 그 홍보가 생각나 다시 찾아보았더니, 2-6학기차 재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있었다. 당시 1학년 1학기에 재학중이었던 나는, 2학기가 되자마자 신청 기간에 맞춰 전과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 과에 다니며 정말 이 전공과 내가 맞지 않아 힘든 것인지, 계속 배워봐도 흥미를 찾을 수 없는지 명확하게 내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1학년 2학기까지 생활조형디자인과에서 쫓 지냈다.

그러나 계속된 회의감에 끝내 적응할 수 없다고 느꼈고, 전공 교수님과 학기중 상담을 하며 내 마음을 가볍게 털어놓았다. 나는 앞으로 가구, 제품과 관련된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교수님께서도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이 과와 맞지 않을 것이라고 산업디자인학과로 전과할 수 있으니 그 과의 수업을 한 번 들어본 후 결정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정말 감사하게도 내게 많은 도움이 된 상담이었고, 그 상담을 계기로 난 다음 수강 신청인 2학년 1학기에 산업디자인학과 1학년 전공 수업 하나를 듣기로 결정했다.

또한, 1학년 2학기 말에 생활조형디자인학과 4학년 학생들의 졸업 전시회가 진행되어 보러 갔었으나, 졸

업 전시회를 보며 계속해 내가 하고싶은 디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내가 훗날 금속이나 주얼리를 하게 된다면 이때까지 달려온 디자인 자체를 포기하고 싶어질 것 같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생활조형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졸업 전시회를 두 눈으로 직접 보니, 더욱 이 전공과 난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전공에 대한 마음을 굳혔다.

전과를 결심한 후, 전공 교수님의 조언대로 2학년 1학기에는 소속된 생활조형디자인학과와 전공을 2개만 두고, 전과 희망 과인 산업디자인학과와 1학년 전공 하나와, 교양들로만 수업을 들었다. 전과 할 과의 수업에 더 집중하다 보니, 무리지어 다니는 생활조형디자인학과와 특성상 나는 어울려 다니던 동기들과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끝내 같은 전공을 많이 듣지 않는 나를 제외한 다른 무리가 생기며 그들끼리 뭉치는 현상이 생겼다. 평소 가족애가 강하던 생활조형디자인학과는, 전과할 기미가 보이는 날 품고 가지 않았으며, 가깝게 지내던 동기들마저 서서히 나와 연락이 끊어지기 시작했다. 한 학기 동안, 전과를 앞둔 난 철저히 혼자자 되었다. 별안간 혼자자 되어버린 나는, 수업 내내 혼자 다녔고, 가족애로 똘똘 뭉친 동기들 사이에서 외롭게 동떨어진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며 나의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스스로의 확신이 떨어지게 되었다. 주변의 눈치를 보며 밥을 먹어야 했고, 수업이 끝나면 도망치듯 과실을 나와야 했기에 끊임없이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을 다잡기 어려웠다.

2학년이 되고 나서야 생활조형디자인학과와 제대로 된 전공을 배울 수 있었는데, 나는 크리에이티브모델링 수업과 3D컴퓨터모델링 수업을 들었다. 크리에이티브모델링 수업에서는 손으로 직접 흙을 만지고, 석고 틀을 만들며, 석고 모델링에 대해서 배웠으며, 3D컴퓨터모델링 수업에서는 라이노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 사용 방법과, 반지 디자인 프로세스 등을 배웠다.

나는 제품 디자인을 배우고 싶는데, 손으로 직접 작품을 만들고, 반지 디자인을 하려니 수업 내내 집중하기 어려웠다. 손으로 직접 작품을 만들며 손에 상처가 생기고, 손이 건조해져 트고 아플 때마다 내가 좋아서 시작한 미술인데 지금 하는 것들은 전혀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아 매일이 슬픔과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전과 전형 모집 요강을 보던 중,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학과는 학업 성적과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추려낸다는 공고를 보고 혹시나 나 또한 성적과 면접을 보게 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성적을 잘 받아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성적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으나, 더 좋은 성적을 만들기 위해 실기 수업 중 교수님의 말씀에서 필요한 부분이나 피드백을 항상 필기했고, 수업이 끝나면 실기실에 항상 남아 부족한 실기 과제를 마무리했다. 집에 가서는 그 날 배운 3D 수업을 늘 복습했고, 잊지 않게 수업 전 날 한 번 더 복습했다. 비

실기 교양 수업에서는 매 수업마다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필기했으며, 과제 또한 게을리 한 적이 없었다. 공강 시간에는 학교 도서관이나, 단대 라운지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해 시험 공부를 틈틈히 해나갔다.

아픈 손을 붙잡고 성적을 챙기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갔지만, 오히려 내 마음은 파폐해져만 갔다. 전혀 보람차지 않았다.

산업디자인학과는 제품, 가구, 자동차(운송), 조명 디자인을 하는데 나는 특히 제품과 가구 디자인을 하고 싶었다. 인체공학적이고 실생활에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배우고 싶었다. 산업디자인학과인 주변 친구들을 보며 그 분야를 공부하고 동기들과 다양한 디자인적 교류를 하는 것이 부러웠다. 타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전시회에 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는지,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지 생각을 하며 더욱 산업디자인에 간절해졌다.

디자인 학과의 전공 특성상 타과 제한 수업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허가를 통해야만 들을 수 있었고, 수강하기신청 끝에 승인되어 다행히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산업디자인학과 1학년 전공인 평면조형 수업의 첫 날, 교수님 소개와 함께 앞으로 산업디자인학과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어떤 걸 배우게 될지에 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다. 각 학생마다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은지 물은 뒤, 그에 맞는 지식과 예시 자료를 보여주었고, 교수님께서 본인의 대기업 전자제품 디자인 경험 스토리를 들려주셨다.

디자인에는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만들기보다, 기존의 것들에서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을 개선하고, 추가, 변형할 점을 관찰하며 디자인한다. 첫 날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내내, 이 수업 정말 듣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며 마음속 죽어있던 열정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평면조형 수업에서는, 조형, 색감, 질감, 대비 등 여러 조형적인 요소를 이용해 모션 디자인, 숫자 디자인, 브랜딩 하는 디자인 수업을 했다. 과제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으며 수정하고 또 수정했다. 내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여러 디자인적인 고민을 하며 스스로도 성장하는 것이 보였고, 내가 배우고 싶고, 하고 싶었던 분야의 전문적인 수업을 들으니 매 과제를 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행복했다.

05월 23일부터 27일까지가 전과 전형 신청기간이었다. 전임교수님과 전과 상담을 하고,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희망 과로 전과 신청 후, 허가서를 인쇄해 단대 학과장 교수님 싸인을 받아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면 되었다. 전임 교수님과 전과 상담을 하며 내가 언제부터 전과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어떤 계기로 확신했으며 학기 중 산업디자인학과 수업을 듣고 있고 앞으로 배우고 싶은 분야와 당시 학교 졸업 후 어디로 취업하고 싶은지 설명했다. 전임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예상하셨다고 하시며 앞으로의 길을 응원해

주셨다.

전임교수님과 상담 후, 전임교수님께서 학과 대표 교수님이 연구실에 계시니 가서 전과 신청한다고 말씀드리라 하셨다. 일종의 안녕 인사 같은 거였다. 학과 대표 교수님의 연구실로 찾아 뵈러 가서, 전과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니 차가운 정적이 흘렀다.

어느 과를 가질 바라나는 차디찬 질문에, 전과 희망 과와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었으나, 가구는 우리 과(생활조형디자인학과)에서 하는 것인데 왜 그 과를 희망하는지, 나와 같이 산업디자인학과로 전과하겠으며 짧게 생각한 선배들이 많으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다. 전과 후 낙동강 오리알처럼 혼자 걸돌고 지낼바엔 여기 있는게 훨씬 좋다고 하셨는데, 내겐 너무 차가운 말들이었고, 전과를 이미 앞두고 있던 나는 이 모든 말씀들이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내가 언제부터 고민했고, 진심으로 어떤 걸 배우고 싶은지 존중해주시지 않는 것 같았다. 반발심이 들었다. 생활조형디자인학과는 가구를 하는 과가 아닌걸 이미 학교를 다니며 알고 있는데, 나를 그저 붙잡으려 쏘아붙이신 말들이 너무 비수처럼 꽂혀 혼란을 겪었다. 금요일까지 신청 기간이니 잘 생각해 보고 언제든 찾아오라고 하셨고 그렇게 연구실을 나왔다. 나는 이미 전과에 대한 생각을 전부 끝냈고 실행하러 왔는데 이렇게 날 막으시니 당황스러웠다. 나는 학과 대표 교수님 수업을 듣지도 않았고 과 행사도 참여하지 않았기에 날 모르실 텐데 그저 과 인원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날 잡으시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건물 밖으로 나와 바로 전과 신청 접수를 해도 될지 말아야 할지, 바로 신청했다가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었다.

한참동안의 고민 끝에, 바로 전과 신청 및 접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과를 바라왔고, 이미 확고하게 결정한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실행하고 싶었다.

학과 사무실을 통해 학과장 교수님께 전과 허가 사인을 받으러 가겠다 연락해 둔 상태였기에, 학과장 교수님께 허가 사인을 받고 바로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전과 신청 전, 전임 교수님과 이미 상담을 끝내 뒀었던 터라 다행히도 문제없이 바로 전과 신청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전쟁 같던 전과 신청을 마치고 난 후, 난 한결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학교생활에 집중 할 수 있었다. 두 학과의 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 모두 빠지지 않고 수업을 들으며, 과제와 시험 준비 또한 성실히 임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실기실에 남아 전공 과제를 하고,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으며 성실히 나의 학기를 마무리했다. 정말 여러모로 많이 힘들었던 나의 2학년 1학기는, 내게 많은 고민과 좌절감, 늘 쫓기는 듯한 불안감 등을 안겨 줬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한 학기가 끝이 나니 정말 후련했다. 모든 걸 쏟았다.

종강 후, 성적 발표가 나던 날.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3D컴퓨터모델링 수업은 A+를 받았고,

평면조형 수업은 A, 나머지 수업 또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정말이지 모든 것이 다 감사했다. 또한 석차는 성적이 나온 후 며칠 뒤에 나오는데, 난 좋은 성적을 확인했음에도 석차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았다. 1학년 때에 비해 평점 평균도 조금 낮았고, 생활조형디자인 학과에서 전공을 많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석차 발표가 나고, 큰 기대 없이 확인한 내 석차는 1등이었다. 1등. 믿기지 않는 마음에 새로고침을 몇 번이고 다시 눌러봤다. 여전히 1등이었다. 정말 모든 걸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내가 1등을 했다니, 너무 신기하고 뿌듯했다. 전과에 성공한다면, 이제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깔끔히 마무리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다. 열심히 하면 정말 되는구나, 나 고생했구나. 스스로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날이었다.

방학이 되자마자 라식을 했다. 평소 시력이 좋지 않은 편이라 학교 제휴 안과를 통해 수술했다. 눈의 회복을 위해 한 달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지냈는데, 집에 있으면서도 현직 산업 디자이너의 제품 디자인 강의를 들으며 제품 디자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사용 방법, 개인의 노하우 등을 계속해서 공부했다.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았다. 실제 이 강의를 들으며 공부한 덕분에, 디자인 전체 프로세스를 익혀, 산업 디자인에 관한 이해력과 실력을 꾸준히 키워나간 방학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전과 발표 기간이 되었다. 난 전과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종합 정보 시스템을 접속하였다. 면접을 본다는 별다른 연락이 없어 합격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합격하지 못하고 많은 경쟁률 속에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며 고등학생이 첫 입시를 보는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다.

우려하던 결과는, 합격합격이었다. 합격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온 몸의 힘이 빠져나가듯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구나. 여러가지 복잡한 심정과 얹힌 내 마음은 확연한 안도감이었다. 안도의 마음과 동시에, 드디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정말로 배우고 싶었던 전공의 소속 학부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다.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지난 힘들었던 날들을 통째로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다. 기쁨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누구보다 더욱 간절했던 내 전공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나만의 디자인을 만들 것이고, 여기서 끝이 아닌, 전과를 발돋움으로 더욱 큰 나의 목표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내게 정말 많은 교훈을 준 전과라는 추억은 대학 생활 내내 잊지 못할 사건일 것이고, 내게 있어 하려고 노력하면 뭐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줬다.

원하는 과로 전과할 수 있었던 좋은 전과 제도 시스템에 감사하며, 긴 글을 마친다.

제목 Title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속도로		수상	장려상
			학과(부)	간호학과
	주제	편입학	학년	3학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속도로

나는 현재 대구대학교 간호학과에 2학년 2학기에 재학중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나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고민과 결정 그리고 노력들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나는 작년 이맘때쯤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정을 했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편입준비를 해 본교에 학사편입을 한 케이스이다. 2020년 초 서울에서 4년의 대학생생활을 종지부 찍고, 2년이 지난 후, 이전 전공이었던 미디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새로운 전공으로의 학부생이 된다는 결정에는 정말 많은 고민과 또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이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나를 가장 큰 도전이자 모험을 결정하게 된 나만의 이야기이자, 또 도전을 앞두고 용기가 필요한 많은 이들을 응원하는 모두의 이야기이다.

대부분의 모두가 그러하듯, 20살이 되던 해 나는 첫 대학과 첫 전공을 결정했다. 당시 나는 그저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학교에 가고 싶었고,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멋지게 성공해 커리어우먼으로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렇게 막연한 ‘~하고 싶다.’의 마음으로 20살의 결정을 내린 반면, 27살의 내가 짧은 기간 내에 대구대학교 간호학과로의 편입을 결정 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미 완고하게 ‘간호사가 되어야겠다.’ 하는 큰 결심을 스스로 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획을 세워 도전하는 것과, 그저 어떻게든 잘 될 거야 하는 마음만으로 무엇인가를 시행하는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동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5 일이라는 동일한 시간적 조건 속에 살아가고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지에 대한 결정하는 것, 즉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알고,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 두면 그것이 동기로 작용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워도 참을 수 있는 인내심

을 가질 수 있다. 나의 결심에는 그러한 동기가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3년의 시간을 학생으로서 더 공부해야하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을 알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가 있었다.

결심을 할 시기 난 졸업 후 고향으로 내려와 취업준비를 수개월동안 하며, 맞물려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문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몸소 겪고 난 이 후였고, 이러한 시간 뒤에 자연스럽게 전문직에 대한 갈증이 생겼다. 그리고 대학시절 미국 교환학생으로서의 경험과 한국재외동포재단의 해외 인턴사업을 통한 인도에서의 업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추후 해외에서 커리어를 쌓아보고 싶다는 욕심과 또 이미 전국 각지에서 임상 간호사로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의 조언을 토대로 ‘간호사가 되어보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간호사가 되어보자!’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간호사는 전문직으로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하기에 커리어적 성장 이외에도 나 스스로 한 인간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내면적으로 전인정신, 봉사정신 등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아직은 한국보다 해외에서 간호사의 전문성을 더 인정해주고, 직업적 위상이 높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과 처우에서 일하면 직업적 만족도가 더욱 높을 거라고 생각했다. 많은 것을 고려한 깊은 고민의 시간 끝에 내린 결정 이후에는 망설일 것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의 두번째 대학에 도전하는 만큼, 편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내게 필요한 점과 우선시해야 하는 점들을 먼저 고려했다.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준비해 대학생생활을 할 수 있는 본가 주변의 대학에 편입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장학금제도와 혜택이 다양한 학교를 우선순위로 두었다. 또, 간호학과는 신입학 뿐만 아니라 편입도 경쟁률이 아주 높은 편이기 때문에, 내 장점을 어필 할 수 있는 면접비율이 높은 전형과 학사학위 소지자를 뽑는 학사편입 전형을 중심으로 지원을 했다. 운이 좋게 나는 내가 지원한 학교 대부분에 합격을 했고, 나는 내가 우선순위로 두었던 조건들을 고려해 대구대 간호학과 편입을 결정지었다. 편입 합격을 하고 난 이후 정규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았다. 고등학교 문과 출신에 이전 대학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했던 내가 간호학과 학업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었기 때문에, 나름의 선수학습 과정으로 고등학교 생물1 수능특강 강의를 들어보기로 했다. 고등학교 1학년 이후, 근 10년만에 다시 만난 ‘생물’이라는 어색한 과목,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색한 만남을 대학 편입 이후 정규수업에서 가졌다면 나는 내가 더욱 난처해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이전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기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자취생활을 대구대 편입을 하며 함께 준비 했다. 새로운 학교

생활과, 또 낮은 동네에서의 자취 생활로 나는 스물여덟살의 봄을 맞이했다.

그렇게 학기가 시작되었고, 시간은 화살같이 흘렀다. 간호학과 특성상 정해진 분반과 시간표대로 수업을 신청해 들었고, 이론수업과 별개로 교내실습수업도 함께 진행이 되었다. 이전의 학교생활과 다른 점들에 적응해가면서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친구들을 사귀었고, 여러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간호’라는 학문과 ‘간호사’라는 직무를 어찌면 지금까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호’라는 학문은 의학적/생리학적/병리학적/약학적 등 총 체론적인 전문적 지식을 배우는 방대한 학문이었으며, 실질적 직무에서는 지식적인 부분 뿐 만 아니라, 환자/보호자/병원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하는 능력과 간호사가 능동성을 가지고 하는 비판적이고 윤리적인 사고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생물기초를 독학으로 예습하고, 또 이전에 미디어 전공을 하면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과목과,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대한 과목도 수강을 했기에, 첫 학기의 수업을 들으면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렇게 나는 다시 대학생이 되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채워나갔고, 수업, 팀 프로젝트, 과제, 또 두번의 시험을 치르고 나니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되었다.

편입을 하기 전 가장 걱정이 되었던 부분을 꼽자면 간호학과 편입은 다른 학과편입과 달리 2년이 아닌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언제 또 다시 3년의 시간을 공부해서 졸업을 할까? 하는 걱정과 또 그 과정에서 내 또래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커리어를 계속 쌓아갈 거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가족도 만들겠지? 그런 친구들의 삶과 나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조금해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하지만 한 학기를 최선을 다해 보내고 벌써 두번째 학기를 맞이하는 지금의 나는 안다. 개개인 각자의 위치는 모두 다 다르며, 또 각자만의 속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속도로 ‘나만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처음 간호학과로 편입을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주변에 알렸을 때, 내게 누군가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어? 너무 힘들지 않겠어? 지금까지 공부하고, 일했던 게 아깝지는 않아?’ 하는 질문들로 걱정 아닌 걱정을 표했다. 심지어 나의 부모조차도 ‘왜 처음부터 간호학과를 가지 않았어?’하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셨다. 나는 내가 20대 후반이 되어서,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고, 어떠한 가치를 중요시하며 일을 하고 싶고, 어떠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은지를 알게 되었다. 그게 나의 속도였고, 20대 초 중반에 공부하고,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이 있었기에 알 수 있었던 점들이었다. 스물일곱살에라도 명확하게 알게 되어서 다행이고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 과거의 선택들에는 후회도 미련도 없다.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조금은 돌아가는 게 맞지만, 20살 때와 달리 오롯이 27살의 내가 나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기에 나는 이 결

정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다.

위와 같은 마음으로 한학기동안 모든 과목에 최선을 다했지만, 간호학과는 다른 학과보다 치열하고, 또 모두가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적표를 확인하기 전에는 너무나 긴장이 되고 걱정을 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았고, 성적 장학금 또한 받을 수가 있었다.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으며 첫 학기가 끝나고 난 뒤, 나는 더욱 큰 자신감을 얻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도전의 끝에는 내가 목표로 하는 ‘미국 간호사’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내가 느끼게 될 행복감과 성취감이 새로운 학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주변의 시선이나, 스스로 너무 늦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도전 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아무리 힘들거나,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여정 끝에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거나 도달하고 싶은 목표점이 있다면,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외면적으로는 한국 간호자격증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임상경험을 쌓은 뒤, 국제 간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목표이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이미 지금까지 나를 위해 도전하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단단해졌음을 나 스스로 느낀다. 앞으로 남은 학기동안 내가 배우게 될 것들과 전문 의료인 간호사로서 임상에서 배우고 느끼며 구축해갈 나만의 가치관들에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다. 나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지지해 준 가족과 주변 친구들, 그리고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준 본교에 다시 한 번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2022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사례집



사랑 · 빛 · 자유의 전당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아카데미코칭센터
053) 850. 5854 <http://acc.daegu.ac.kr/academic/main>